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유 경 화*

보물찾기(사회서비스센터)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서울,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3세~만 5세의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711명을 대상으로 SPSS 24.0와 LISREL 8.52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원가족경험, 자아존중감, 양육행동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원가족경험과 자아존중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고,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모형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이 양육행동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가족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투사와 정서적 단절이 자아존중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판단과 행동, 자신의 가치가 양육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원가족경험과 양육행동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주요 매개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미래사회의 부모역할 위기에 적절한 대처방안으로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원가족경험, 자아존중감, 양육행동

본 논문은 박사학위논문(202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로’를 수정·보완하여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유경화/보물찾기(사회서비스센터) 전문상담원/(08562)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6길 33 1층
Tel: 02-804-0179/E-mail: ibomuls@naver.com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핵가족화, 맞벌이 가족이 확산되면서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들의 역할과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는 절대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유아기 자녀들에게 양육책임감은 물론 부모됨의 정서적 성숙도까지 기대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박정운, 장영은, 2013; 안명희, 2010). 특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태어나 부모의 절대적인 보살핌이 요구되는 영유아기 자녀에게 부모는 자녀의 생존에 절대적인 사람(survival figures)이라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 돌봄이 필요한 만3세부터 만5세까지의 유아기는 모든 영역의 기초가 형성되는 중요한 단계로 특히 인간다움을 유지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기능하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이다(김권수, 2018; 양은호 2012). 이 시기의 뇌는 두뇌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면서(Ratey, 2001; Shore, 2001) 종합적인 사고기능, 인간성, 도덕성을 획득하게 되며, 다양한 정서를 표현하게 되고 타인의 정서를 이해하고 의사소통능력도 가능하게 된다. 어른과의 대화는 물론 또래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정서적·신체적·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자율성, 신뢰감, 주도성과 같은 정서적 발달 및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고 발달시키며 성장한다(Erikson, 1990).

따라서 이 시기의 부모는 자녀의 생존을 위해 자녀가 요구하는 것을 충분히 채워줘야 하고, 자녀가 무엇을 할지 무엇이 될 것인지에 대해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스스로 어떻게 돌보고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배워 나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신의 부모에게서 학습한 대로 자녀들을 가르친다(Satir, 2006). 자녀는 부모와 가족으로부터 삶의 방식을 습

득하게 되며, 성장과정에서 습득된 삶의 방식은 자녀가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후 자신들의 자녀에게 반복하여 이어지게 된다. 부모 역시 어린 시절 그들 부모로부터 배운 삶의 방식을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현재 가족에게 적용하며 가족체계를 구성한다(김영애, 2015; Kerr & Bowen, 2005; Winnicott, 2000).

자녀들은 부모라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배우며 성장하는데, 부모가 공감해주는 거울이 되어야 어린 자녀들은 완벽하지 않아도 여전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는 것을 배우게 되며 자아존중감을 만들어가기 시작한다(Engel, 2009). 또한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의존하며, 자신들을 사랑하고 수용해 주는 충분히 좋은 부모를 원한다. 충분히 좋은 부모란 사랑, 인정, 수용, 헌신, 지혜, 상식, 유머와 여유, 모험심 등 양육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인내심 등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는 부모 자신이 겪은 원가족 부모와의 경험에 대하여 분명한 자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은 해결되지 못한 채 삶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자녀들에게도 전달되기 때문이다(김영애, 2015).

이처럼 부모란 자녀의 인생에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존재로 양육행동을 통해 자녀들의 성장과 발달에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모들은 이러한 양육행동을 원가족 부모의 훈육과 관찰을 통해 학습한다(박혜진, 2019; 서기남, 문혁준, 2008). 원가족에서 애착경험이 안정적이고 수용적일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나며, 원가족에서의 상호작용은 세대전수 되어 자녀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게 된다(신건호, 심혜숙, 2018; 전주혜, 박정운, 김양희, 장영은, 어성연, 2010).

또한,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주관적 지각과 가치의식을 의미하며, 환경을 선택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며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문무경, 2017). 부부의 낮은 자존감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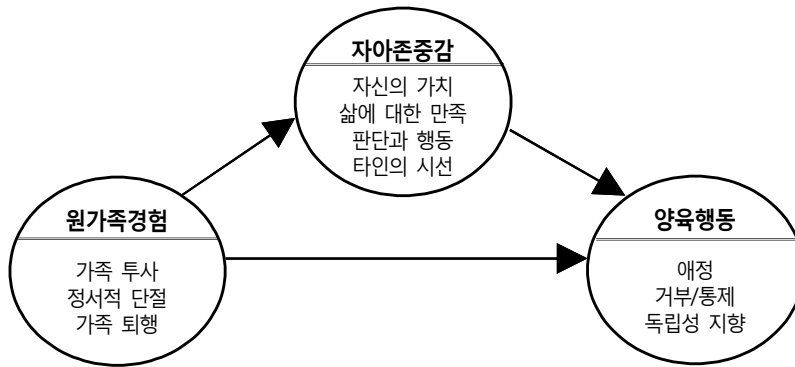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가 대신 부부의 자존심을 높여주고, 부부 사이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감소시켜주기를 바라게 된다(김영애, 2015; Satir, 2006). 그리고 어린 시절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자식에게 대물림하게 되고 어린 시절 형성된 자아존중감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영향을 받으며 악순환의 형태로 되풀이 된다(한성심, 2005). 양육의 어려움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자신의 문제와 관련되어 갈등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음을 밝히며, 부모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서도 원가족과 관련하여 부모 자신에 대한 회고와 자각 과정을 통하여 자신을 이해하고 온전히 수용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여순화, 2018). 그 결과 참여한 부모들은 자신의 삶에 주도적이고 건강성을 회복하여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어 자녀들의 양육행동에도 긍정적이고 성장을 꾀하는(한성심, 2005) 좋은 부모로서의 자신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김근혜(2020)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높을수록 양육의 유능감을 갖게 하며, 김영미와 송하나(2015)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짐을 밝히고 있다. 부적응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담에서 김경옥(2016)은 청소년참여자의 어머니에게 상담과 부모교육으로 원가족으로부터 세대전수된 역기능적 양육행동을 자각하고 다른 선택을 하도록 도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켰다. 그리고 청소년참여자에게는 내재화된 부정적인 이미지와 자기비난을 줄이고 스스로의 선택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며 대인관계의 부적응행동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입증하여 부모-자녀 관계개선 및 건강한 상호작용이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신흠부부를 대상으로 연구한 최정란(2014)의 연구에서도 개인의 자아존중감과 친밀감을 증진시킴으로써 다음 세대 예비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건강한 가정의 기초를 이룰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영란(2007)의 연구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들이 자기수용과 사랑을 경험하고 긍정적인 사고

와 태도 변화로 삶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며, 자아존중감 향상으로 발달단계의 건강한 부모 및 가족관계의 성장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개별 상담 및 부모상담, 집단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과 자아존중감 향상이 가능함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양육의 주체인 부모가 ‘좋은 부모’로서 자녀를 ‘행복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원가족으로부터 전수된 미해결과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하며, 이때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중요한 매개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부모의 원가족경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다룬 연구는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유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의 부모로부터 받은 부적절하고 부정적인 양육경험이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 자아존중감, 양육행동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둘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은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은 자아존중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자아존중감은 양육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섯째,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가 있는가?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이 구성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양육행동,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원가족경험을 독립변수로, 양육행동을 종속변수로,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직·간접적 영향 관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2. 이론적 배경

1) 원가족경험과 양육행동

원가족경험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 성장하고 성인이 되는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할 때까지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갖는 가족과의 경험을 의미한다. 또한, 가족구조 및 구성원의 형태와 함께 가족관계 내에서 가족기능 및 역할 등의 경험을 모두 포함한다(김현수, 2019; 송정애, 2017; 하상희, 2007; Anderson & Sabatelli, 1992; Hovestadt, Anderson, Piercy, Cochran, & Fine, 1985).

강상현(2018)은 원가족 건강성, 지각된 부모양육행동, 부모통찰이 부모의 애정, 독립성 지향, 거부·통제, 과보호와 같은 양육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버지와의 긍정적 경험은 양육행동에서 좋은 아버지 역할수행에 영향을 주고(김경숙, 2015), 원가족 부모로부터의 긍정적인 수용경험은 양육효능감으로 자녀양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김정주, 2010; 전주혜 등, 2010). 이렇듯 원가족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김현수, 2019; 신건호, 심혜숙, 2018). Belsky(1984)는 가족과정 모델(family process

model)에서 부모들은 원가족에서 아동기의 경험이 양육행동과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양육행동은 세대 간 전이되고 있음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부모의 원가족경험은 양육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 내면의 상처와 영킴을 자각해야만 대물림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문제와 관련된 갈등의 패턴을 반복하면서 부모역할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부모들이 부모 상담이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원가족과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회고하고 스스로에 대한 자각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온전히 수용함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한다(여순화, 2018). 그러므로 부모는 자신의 성장 경험과 내면에 대한 탐색과 통찰이 필요한 것이다(현정희, 2011; Luster & Okagaki, 1993).

한편, 양육행동(parenting behavior)이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내재적·외현적 행동과 태도를 뜻하는 것으로,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맺으면서 애정을 베풀고 지도하고 가르치며 나아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김신정, 김영희, 2007; Atwater, 1992). 양육행동은 부모의 신념이나 가치, 태도 등이 반영되어 나타나며, 유아의 정서, 인지, 사회적

발달은 물론 신체발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긍정적이고 온정적 양육행동은 자녀의 사회성발달과 긍정적 성장에 관여하며,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을 높여주고 아동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아동의 행복감에 기여하고 있다(김순구, 2002; 박혜진, 2019). 또한, 어머니의 온정적이고 격려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과 사회적 리더십을 갖게 하여 유아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발달과정에 긍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다(양은호, 2012; 이지희, 문혁준, 2010). 반면, 부모의 부정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유아기 자녀를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위축하게 만들며, 언어발달을 지연시키고 공격성과 과잉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래관계의 어려움을 겪게 하는 등 자녀의 문제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문자, 2008).

2) 자아존중감, 원가족경험, 양육행동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존경하며 바람직하게 여기는 것이다(Rosenberg, 1979). 자신의 가치에 근거하여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모든 생활에서 자신감이 있고 진취적이며 활력 있는 삶을 영위하지만, 자아존중감이 낮은 사람은 스스로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하며 자신을 확대하고 열등감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Satir(2006)는 나를 대하는 태도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기대는 어린 시절에 받은 메시지에서 온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의 형성에는 가족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며, 특히 가장 최초의 근원적인 집단인 가족관계 안에서 성장하고 발달하는 존재이다. 이러한 사회의 기초단위인 원가족 안에서의 관계는 가족 구성원의 자아존중감과 깊은 관련이 있다(김영애, 2015; 이종원, 2013). 다세대 가족치료 Bowen의 이론에 의하면 가족은 자연에 존재하

는 살아있는 체계로 가족의 정서과정은 역사를 통해 지속된다고 한다(Kerr & Bowen, 2005). 분화수준이 낮은 부모에게 노출된 자녀일수록 부모와 융합되어 핵가족 내의 자녀에게 만성불안을 그대로 전달하고, 분화수준을 높게 되면 원가족 정서적 융합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율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이종원, 2013). Satir(2006)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을 일치적인 상태라고 하며, 이들은 나와 타인과 상황의 입장을 고려하고 자신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불편함이 없는 의사소통 방식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타인으로부터 휘둘리지 않는 건강성의 중심축이라 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일치적인 의사소통으로 타인과 친밀함을 유지하면서도 독립적인 관계를 맺는다(김영애, 2015; Satir, 2006).

먼저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이강훈(2015)은 장애 자녀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원가족경험과 가족건강성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자아존중감의 경로를 통해 양육부담과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영미와 송하나(2015)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행동을 보이고, 자녀에게 더 많은 애정과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양육하며 자신의 능력을 믿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게 된다고 한다. 이서연(2018)도 원가족에서 아동기의 수용적 경험은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아동기의 거부적 부정적 경험은 정서지능과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머니의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안정적인 정서발달이 이루어짐을 밝히고 있다. 하상희(2007)의 연구에서도 세대 간 전이되는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에 대하여 부모의 자기분화는 부모세대로부터 부모의 원가족 건강성을 영향받으며 또한 자녀세대 자기분화 수준까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한편 한선화(2009)는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자신을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게 바라보며

애정적 양육행동을 나타내며, 자녀를 인정하고 격려하며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태도를 보인다고 하였다. 김미정(2015)은 자아존중감이 높은 아버지는 자신 스스로 유능한 부모라고 인식하고 부모역할에 자신감을 갖고 적극적이며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취하게 된다고 한다. 고영희(2011)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온정적 양육행동과 가족건강성을 매개로 유아의 자아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가족의 건강성보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향상이 더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주는 어린 시절의 정서적 학대와 방치, 정서적 숨 막힘 등의 상처들은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하고, 자기상을 부정적으로 만들며, 자녀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연결된다(Engel, 2009; Satir, 2006).

이렇듯 자아존중감 수준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아동에게 긍정적인 애정과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낮은 자아존중감은 양육 스트레스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김근혜, 2020; 김영미, 송하나, 2015). 홍보화와 이지민(2013)은 부부갈등요인으로 원가족경험의 감정규칙과 자아존중감이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고 자아존중감을 높임으로써 부부갈등을 해결하고 자녀 양육도 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러한 관계들을 부부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적용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오종현(2016)은 원가족의 건강한 경험은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담자의 개입과 전략 등의 중요성을 주장한다. 여순화(2018)는 교육에 참여한 부모들의 변화과정에 대한 내러티브탐구 연구에서 대상자들이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인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를 자녀에게 대물림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한다. 이후 자신을 보살피고 선택과 거듭나기를 통해 ‘개인의 삶에 대한 온

전한 수용’ 과정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부모들의 회복과 성장을 피하여 부모-자녀 간 건강한 관계로 자녀양육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현정희(2011)는 부모교육프로그램 효과성 검증에 관한 연구에서 부모 자신의 내면 통찰로 자녀와의 관계나 부모 수용, 분리 개별화, 자아존중감 향상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전순득(2017)의 연구에서도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가 교육 및 상담에 참여한 후 자신의 삶에서 주도성과 건강성을 회복하고 자아존중감이 향상되었으며, 이후 자녀의 성장을 도모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향상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한성심, 2005).

종합하면, 부모의 양육행동은 부모 자신의 원가족경험에 기초하며 어머니의 원가족 애착경험이 안정정일수록 자녀에게 긍정적 영향을 준다(김경숙, 2015; 김정주, 2010; 김현수, 2019; 신건호, 심혜숙, 2018). 부모의 건강한 원가족경험은 부모의 자아존중감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오종현, 2016; 이서연, 2018), 자아존중감이 높은 부모들은 애정적이거나 지지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낸다(김미정, 2015; 한선화, 2009). 하지만 부모의 낮은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근혜, 2020; 김영미, 송하나, 2015; 이강훈, 2015). 이러한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부모의 자아존중감 수준은 이 경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 둘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좋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필요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유아기관(유치원 9곳, 어린이집 6곳)에 다니고 있는 만 3세~만 5세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19년 8월 19일부터 9월 16일까지 실시하였고, 총 900부를 배포하여 765부가 회수되었다(회수율 85.0%). 이 중 부실기재된 설문지 54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711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원가족경험

원가족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제석봉(1989)이 개발한 자아분화척도를 송정애(2017)가 가족투사, 정서적 단절, 가족퇴행의 3개의 하위영역으로 수정·개발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하위요인별로 가족투사가 5문항, 정서적 단절이 12문항, 가족퇴행이 5문항 등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 범주는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가족투사' 영역은 '어릴 때부터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어머니 마음에 차지 않았다'와 같이 미성숙한 부모가 가족체계나 부부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가장 취약한 자녀를 투사대상으로 선택하여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불안과 스트레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정서적 단절' 영역은 '나는 부모님에게 정을 느끼지 못했다'와 같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끼리 정서적 접촉을 끊고 지내는 것으로, 부모와 융합된 자녀가 원가족과의 접촉으로 생기는 불안과 긴장을 줄이기 위해 물리적, 정서적 접촉을 회피하여 관계가 단절된 정도를 의미한다. '가족퇴행' 영역은 '내가 자랄 때 우

리 가족은 대체로 화목하고 단란했다'와 같이 불안에 휩싸일 때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지적 행동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증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 능력이 위태로워지는 정도를 의미한다. 가족투사(5문항)와 정서적 단절(12문항) 17문항을 역채점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경험이 긍정적이고 적절함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36$ 으로 나타났다.

2) 양육행동

부모의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해 Block(1984)이 개발한 CRPR(Child Rearing Practice Report)을 조영숙(2008)이 번안하여 사용한 양육행동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애정, 일관성, 독립성 지향, 거부·통제, 과보호 등 5개 하위요인 총 3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조영숙(2008)이 요인분석을 통해 애정(7문항), 거부/통제(7문항), 독립성 지향(6문항)의 3개 하위요인 총 20문항 척도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애정' 영역은 '자녀에게 칭찬을 잘 해 준다'와 같이 자녀에 대한 존중과 수용, 애정표현을 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거부/통제' 영역은 '화가 날 때 자녀에게 화풀이를 한다'와 같이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불만과 비난,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단적인 행동을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독립성 지향' 영역은 '자녀가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게 한다'와 같이 자녀의 의견이나 생각을 존중하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책임지도록 양육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가 자녀에 대해 애정적이고 덜 거부/통제적이며, 독립적으로 양육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08$ 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1965)가 개발한 척도를 기초로, 자신에 대한 감정 상태나 인지적 추론의 자아개념을 파악하는 총체적인 자아평가의 문항으로 구성된 성희미(2011)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판단과 행동’(6문항), ‘삶에 대한 만족’(6문항), ‘자신의 가치’(6문항), ‘타인의 시선’(6문항) 등 4개 하위영역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5점 리커트(Likert) 척도로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자신의 가치’ 영역은 ‘나는 나의 친구 누구보다도 열등하게 느낀다’와 같이 자기 가치에 대한 신뢰 정도를 의미하고, ‘삶에 대한 만족’ 영역은 ‘내가 잘못된 일을 생각하면 당황하게 된다’와 같이 지나온 삶에 대한 자신의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판단과 행동’ 영역은 ‘내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결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와 같이 자신의 판단이나 행동에 대해 스스로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타인의 시선’ 영역은 ‘내 자신이 내 친구나 나와 친한 사람들과 다르다고 생각한다’와 같이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결과로 시선에 대한 만족감 정도를 의미한다. 모든 문항은 역채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존중하고 가치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을 반영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 .945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 총 711부는 SPSS(ver.24)와 LISREL(ver.8.52)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서 사용한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일치도 계수인 Cronbach's α 를 산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원가족경험, 자아

존중감, 양육행동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원가족경험과 자아존중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모형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모형을 분석하고, 연구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모형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성별은 여성이 365명(51.3%), 남성이 346명(48.7%)으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연령은 36세~40세 이하가 272명(38.3%)으로 가장 많았고 41세~45세 이하가 254명(35.7%), 35세 이하의 120명(16.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녀 수는 2명이라는 응답이 432명(60.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명이 216명(30.4%)이었으며, 3명 이상인 경우는 전체 연구대상자의 8.8%인 63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이 282명(39.7%)으로 가장 많았고, 전업주부 140명(19.7%), 전문직 122명(17.2%), 판매 및 서비스직 96명(13.5%), 생산근로직 및 단순노무직 71명(10.0%)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초)대졸이 497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고졸 이하가 162명(22.8%), 대학원 재학 이상이 52명(7.3%)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의 월평균 수입은 500만원 이상이 214명(30.1%)으로 가장 많았으며,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182명(25.6%), 400~500만원 미만 171명(24.1%), 300만원 미만이 144명(20.3%)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711)			
특성	범주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46	48.7
	여자	365	51.3
연령대	29세 이하	7	1.0
	30세~35세	120	16.9
	36세~40세	272	38.3
	41세~45세	254	35.7
	46세 이상	58	8.2
전체 자녀수	1명	216	30.4
	2명	432	60.8
	3명	62	8.7
	4명	1	0.1
	5명 이상	0	0.0
만3세~5세에 해당하는 자녀 한명의 성별	남자	342	48.1
	여자	369	51.9
만3세~5세에 해당하는 자녀 한명의 연령	만 3세	127	17.9
	만 4세	252	35.4
	만 5세	332	46.7
가족 형태	핵가족	637	89.6
	확대가족	35	4.9
	한부모가족	15	2.1
	다문화가족	20	2.8
	기타	4	0.6
만 3세~5세에 해당하는 자녀의 활동시간 중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족 구성원	아버지	25	3.5
	어머니	571	80.3
	형제자매	51	7.2
	조부모	58	8.2
	기타	6	0.8
직업	전문직	122	17.2
	사무직	282	39.7
	판매 및 서비스직	96	13.5
	생산근로직 및 단순노무직	71	10.0
	전업주부	140	19.7
학력	중졸 이하	1	0.1
	고졸	161	22.6
	대졸	497	69.9
	대학원 재학 이상	52	7.3
월 평균 수입	100만원 미만	9	1.3
	100~200만원 미만	28	3.9
	200~300만원 미만	107	15.1
	300~400만원 미만	182	25.6
	400~500만원 미만	171	24.1
500만원 이상	214	30.1	

2. 상관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인인 연구대상자의 원가족경험, 자아존중감,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우선, 원가족경험과 자아존중감 간에는 $r = -.493$ 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원가족경험과 양육행동 간에는 $r = -.386$ 으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반면,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 간에는 $r = .457$ 로 $p < .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므로 연구대상자들의 부적절한 원가족경험과 낮은 자아존중감, 부적절한 원가족경험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연구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경우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원가족경험, 자아존중감, 양육행동 간의 상관관계

변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원가족경험	1												
2. 가족투사	0.695***	1											
3. 정서적 단절	0.948***	0.536***	1										
4. 가족퇴행	0.772***	0.319***	0.633***	1									
5. 자아존중감	-0.493***	-0.394***	-0.489***	-0.288***	1								
6. 판단과 행동	-0.353***	-0.289***	-0.365***	-0.172***	0.871***	1							
7. 삶에 대한 만족	-0.411***	-0.336***	-0.414***	-0.220***	0.913***	0.754***	1						
8. 자신의 가치	-0.521***	-0.395***	-0.514***	-0.329***	0.908***	0.722***	0.747***	1					
9. 타인의 시선	-0.474***	-0.388***	-0.457***	-0.295***	0.923***	0.760***	0.775***	0.794***	1				
10. 양육행동	-0.386***	-0.288***	-0.363***	-0.284***	0.457***	0.398***	0.371***	0.491***	0.396***	1			
11. 애정	-0.320***	-0.253***	-0.302***	-0.222***	0.389***	0.344***	0.316***	0.412***	0.337***	0.875***	1		
12. 거부·통제	-0.385***	-0.279***	-0.360***	-0.295***	0.432***	0.367***	0.350***	0.466***	0.376***	0.788***	0.538***	1	
13. 독립성지향	-0.231***	-0.161***	-0.220***	-0.176***	0.289***	0.252***	0.233***	0.314***	0.246***	0.763***	0.518***	0.400***	1

* $p < .05$, ** $p < .01$, *** $p < .001$

3.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는 $\chi^2 = 4320.381$ ($p < .001$)로 나타나 $p > .05$ 수준을 만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구조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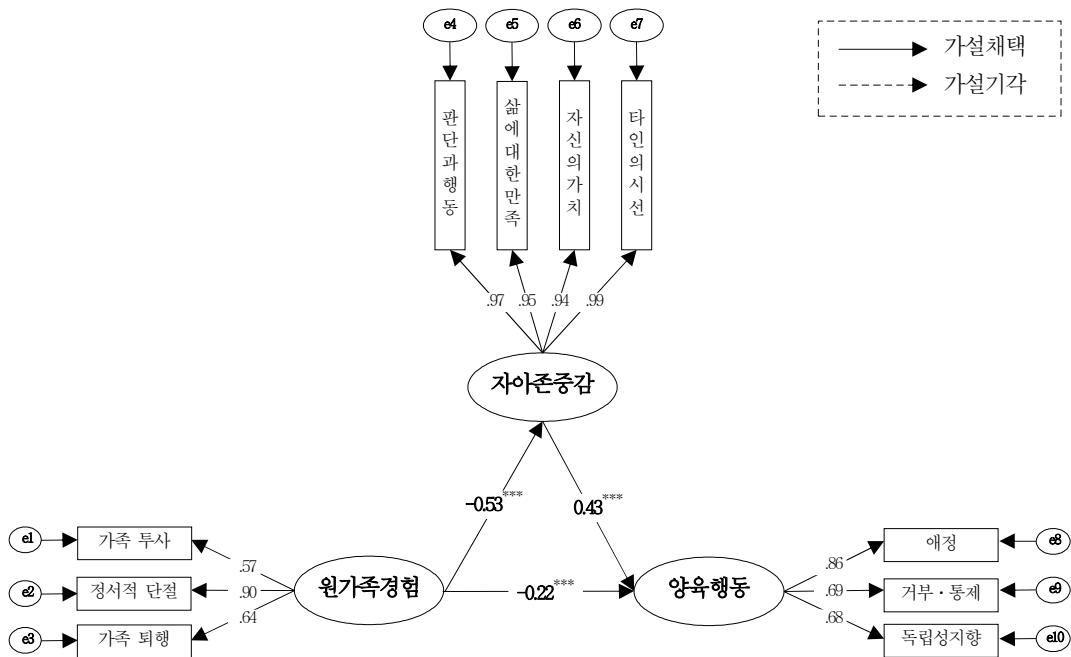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χ^2 검정은 표본의 크기에 민감하다는 단점이 있어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그 결과 표준화 카이제곱(χ^2 / df)은 적합도 기준값인 3.00보다 작은 2.787로 나타났고, RMSEA는 0.054로 나타나 적

합도 기준값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FI는 0.959, CFI는 0.973, IFI는 0.973으로 나타나 적합도 기준값인 0.90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본 연

구에서 제안한 연구모형이 <표 3>과 같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표 3>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결과

구분	적합도 기준값	적합도 지수	적합여부
χ^2 (p값)	p>0.05	4320.381(<.001)	부적합
χ^2 /df	3.00 이하	2.787	적합
RMSEA	0.05~0.08 이하 : 적당한 편	0.054	적합
NFI	0.90 이상	0.959	적합
CFI	0.90 이상	0.973	적합
IFI	0.90 이상	0.973	적합



<그림 2> 구조모형 및 경로계수(N=711)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표 4>와 같이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경험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0.218,

p<.001). 둘째,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경로계수=-0.533, p<.001).

마지막으로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 시 긍정적인 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경로계수=0.434, $p<.001$). 따라서 부모의 원가족경험은 양육행동보다 자아존중감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직접효과

경로	경로계수	표준오차	t-값	채택여부
원가족경험 → 양육행동	-0.218	0.049	-4.48***	채택
원가족경험 → 자아존중감	-0.533	0.041	-13.11***	채택
자아존중감 → 양육행동	0.434	0.051	8.58***	채택

* $p<.05$, ** $p<.01$, *** $p<.001$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해 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즉, 부모의 원가족경험은 양육행동에 부(-)적인 직접효과(경로계수=-0.218,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가족경험이 자아존중감

을 걸쳐 양육행동에 부(-)적인 간접효과(경로계수=-0.231, $p<.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원가족경험과 양육행동에 부분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매개효과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매개효과
원가족경험→자아존중감→양육행동	-0.218***	-0.231***	-0.449***	부분매개

* $p<.05$, ** $p<.01$, *** $p<.001$

IV. 논의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의 어린 시절 원가족경험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자녀의 행복을 위하여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무엇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부모의 원가족경험과 자녀 양육행동 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대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모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표준화 카이제곱(χ^2 / df), RMSEA, NFI, CFI, IFI 지수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주요 연

구결과 요약과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원가족경험,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들의 부적절한 원가족경험은 낮은 자아존중감과 부정적인 양육행동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부모의 높은 자아존중감 수준은 긍정적인 양육행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경험이 많을수록 부정적인 양육행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가족경

험이 부정적이고 역기능적일 때 자녀를 통제하고 과보호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강상현, 2018; 김현수, 2019; 송정애, 2017). 그리고 원가족경험에서 부모의 긍정적 수용경험과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해 안정적으로 인식할 때 현재 가족에서도 자녀에게 긍정적인 양육행동으로 아버지의 역할수행을 잘하는 것으로 보고한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김정주, 2010). 또한, 원가족경험에서 아버지의 역할모델이 세대 전수되어 무의식적으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닮아가고,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가치개념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는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김경숙, 2015; 전주혜 등, 2010).

셋째,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원가족에서의 부정적이고 부적절한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가족에서 부정적 경험이 많을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는 것으로 원가족의 부정적인 경험은 직접적으로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는 선행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엄혜정, 정혜정, 2006; 오종현, 2016; 이강훈, 2015; 이서연, 2018; 이영란, 2007; 이종원, 2013; 하상희, 2007; 홍보화, 이지민, 2013).

넷째,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양육 시 긍정적 행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가족에서의 부모로부터 얻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그대로 자녀의 자아존중감으로 연결됨을 예측할 수 있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며,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과 양육행동에 미치는 요인으로 밝혀진 연구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영희, 2011; 김미정, 2015; 박혜진, 2019; 성희미, 2011; 이서연, 2018; 진순득, 2017; 한선화, 2009).

다섯째,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자아존중감을 걸쳐 양육행동

에 부(-)적인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은 원가족경험과 양육행동에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장애아동 자녀를 두고 있는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 양육행동이 변화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진순득, 2017). 또한, 원가족의 경험과 자아분화수준은 현재 부모-자녀관계와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김영미, 송하나, 2015; 박봉순, 김영희, 2010). 따라서 원가족에서의 영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존중감이 향상되면 자아존중감이 높은 최적의 상태로 자녀가 요구하는 것에 긍정적이며 적절한 반응이 가능하다는 것과 일치한다(최은주, 2018). 그리고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고현경, 이승연, 2010).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원가족경험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라도 양육행동의 질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유아기는 교육의 출발점이며 교육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시기로(신옥순, 2008), 뇌 발달과 창의성, 인성 발달 및 모든 영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결정적 시기이다(김권수, 2018; 김은정, 2013).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는가에 따라 자녀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결정되는 유아기 시기는 자녀가 높은 자아존중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부모들에게 스스로 양육행동을 점검하고 부모역할을 재구조화할 수 있도록 지원서비스가 필요하다.

또한, 원가족에서의 상처와 부적절한 경험은 부모 자신 및 자녀에게 낮은 자아존중감을 전달하게 되고 자신의 미해결과제는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양육행동에 어려움을 증폭시킬 수 있다. 부모가 원가족경험에서 수용과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분위기에

서 성장했다면,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며 의존적이지 않고 자녀에게 자율성과 독립성의 한계를 명확히 그어주어 자녀에게도 높은 자아존중감을 물려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부모가 마음에 들고 흡족하거나 존경스러운 경우는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부모들은 좋은 부모가 되어 행복한 아이로 성장시키기 위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며, 이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실정이지만 자신의 삶에서 미해결과제가 대물림되지 않도록 자신의 성장을 피하고 치유될 수 있음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문무경(2017)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교육 의무화 방안에 대해 연구대상자의 71.5%가 찬성하였고, 부모교육 및 상담을 통해 자녀양육관이 변화될 수 있다는 응답도 89.9%로 매우 긍정적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부모들은 영유아기에 양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며 즐겁고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며 자녀의 존재가 가족을 유지하고 행복감을 주는 중요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자신의 자기 치유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치유가 일어나면 자아존중감은 자연스럽게 향상될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의 부모에게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인식 개선과 성장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서비스의 확대 및 제도적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아존중감이 부분적으로 매개효과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지금까지 유아기 부모의 원가족경험, 자아존중감, 양육행동간 관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를 통해 원가족에서의 부적절한 경험이나 미해결된 상처를 가지고 있는 부모들에게 바람직한 양육행동을 돕기 위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한 교육 및 상담이 효과적임을 예측할 수 있다. 부모의 자아존중감이 양육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유아기자

녀의 부모 상담 및 교육 시 부모 원가족의 미해결된 과제를 해결하고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킨다면 기대하는 바람직한 양육행동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에 대한 기초자료의 근거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서울, 인천 및 경기지역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일반화의 한계가 있으며, 연구대상자의 자기보고식 설문지로 표현의 제한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여 구체적인 인터뷰나 질적연구를 추가하여 혼합형 연구를 하거나 양육행동과 자아존중감, 원가족경험을 부와 모를 분리하여 남녀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참고문헌

- 강상현 (2018). 실존적 심리전기를 활용한 부모통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고현경, 이승연 (2010). 만 4, 5세 유아와 부모의 자아존중감 분석. 육아지원연구, 5(1), 27-50.
- 고영희 (2011).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관련변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김경숙 (2015). 영·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아버지 되어가기'.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대학원.
- 김경옥 (2016). 사티어변형체계치료의 적용 연구: 대인관계 부적응 청소년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권수 (2018). 빅브레인(내 아이 두뇌 성장 보고서). 서울: 책들의 정원.
- 김근혜 (2020). 아버지의 자아존중감과 행복감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회지, 120, 1-17.
- 김미정 (2015). 아버지 심리특성 및 부부특성, 양육특성과 유아 사회성 발달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

- 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김순구 (2002). 양육행동 개념 분석.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CHNR*, 8(4), 414-421.
- 김신정, 김영희 (2007).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고찰. *부모자녀건강학회지*, 10(2), 172-181.
- 김영미, 송하나 (2015). 영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긍정적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육아정책연구*, 9(2), 71-88.
- 김영애 (2015). 통합적 사티어모델: 이론과 실제. 서울: 김영애가족치료연구소.
- 김은정 (2013). 창의·인성교육과 유아발달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고찰. *교육과학연구*, 44(4), 171-190.
- 김정주 (2010).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사회·심리적 특성과 아동기 경험이 아버지 역할수행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김현수 (2019).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내면의 힘과 성인 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문무경 (2017). 한국인의 자녀양육관 변화와 정책적 시사점. *육아정책포럼*, 51, 6-16.
- 박봉순, 김영희 (2010).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남녀의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정체감과 자녀에 대한 태도를 매개로. *대한가정학회지*, 48(9), 1-11.
- 박정윤, 장영은 (2013). 기혼취업여성의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31(5), 159-172.
- 박혜진 (2019).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기독교대학교 대학원.
- 서기남, 문혁준 (2008). 발달적으로 적합한 실제(DAP)에 관한 어머니의 신념과 아동기 양육경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9(3), 23-40.
- 성희미 (2011). 모의 창의성 훈련이 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존중감과 유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송정애 (2017). 어머니의 원가족경험이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가족탄력성의 매개변인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대학원.
- 신건호, 심혜숙 (2018). 어머니의 원가족 경험의 양육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녀가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9(12), 227-237.
- 신옥순 (2008). 유아교육과정구성의 생태학적 기반 탐색. *교육논총*, 28(1), 69-85.
- 안명희 (2010). 모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심리적 통제: 모의 정서와 자아 유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4), 691-710.
- 양은호 (2012). 어머니의 심리적안녕감이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능력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 엄혜정, 정혜정 (2006). 대학생이 지각한 원가족 삼인군 경험이 자아존중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4(2), 137-152.
- 여순화 (2018). 부모교육에 참여한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변화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어쩌다 부모'들의 시행착오와 반성 그리고 깨달음.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오종현 (2016). 원가족경험과 결혼만족 관계에 미치는 자기분화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7(2), 509-532.
- 유경화 (2020).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박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대학원.
- 이강훈 (2015). 장애자녀 부모가 인지한 가족건강성과 영향요인 분석.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서연 (2018).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아동기 경험이 유아권리인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

- 위논문, 경성대학교 대학원.
- 이영란 (2007). Satir 성장모델을 적용한 집단상담이 가정폭력 행위자의 심리내적 체계와 성장변화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 이종원 (2013). 결혼초기 남녀의 부부갈등 관련변인 연구: Bowen과 Satir모델의 이론적 연계성 탐색.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지희, 문혁준 (2010). 유아의 또래 유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외적 요인에 대한 구조 분석. 아동학회지, 31(3), 17-32.
- 전순득 (2017). 장애아동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 전주혜, 박정윤, 김양희, 장영은, 어성연 (2010). 부모의 원가족경험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8(2), 1-15.
- 정문자 (2008). 한국 가족의 문제와 관련된 변인의 발달단계별 탐색 - 1982년~2007년을 중심으로 -. 가족과 가족치료, 16(1), 1-41.
- 제석봉 (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 Bowen의 가족체제이론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조영숙 (2008).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양육행동과 유아의 자기조절능력간의 관련성 탐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최은주 (2018). 내러티브탐구를 통해 본 학교상담사의 자녀양육 경험. 박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대학원.
- 최정란 (2014). 사티어경험가족치료모델 의사소통 훈련 결혼준비교육이 참여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자존감과 친밀감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2(3), 229-251.
- 하상희 (2007).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간 전이.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한선화 (2009). 아동과 어머니의 ADHD성향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박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한성심 (2005). Winnicott의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이론적 탐색. 아동복지연구, 3(3), 145-169.
- 현정희 (2011). Bowen과 대상관계 이론을 통합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홍보화, 이지민 (2013). 원가족경험과 자아존중감이 부부갈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305-305.
- Anderson, S. A., & Sabatelli, R. M. (1992). The differentiation in the family system scale: DIF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0(1), 77-89.
- Atwater, E. (1992). *Adolescence*(3rd ed.). Englewood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lock, J. H. (1984). *The Child-rearing practices report: A bibliography of research using the CRPR*.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Engel, B. (2009). 좋은 부모의 시작은 자기 치유다 (조수진 역). 양평: 책으로 여는 세상. (원저 2007년 출판)
- Erikson, E. H. (1990). *아동기와 사회*(윤진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원저 1950년 출판)
- Hovestadt, A. J., Anderson, W. T., Piercy, F. P., Cochran, S. W., & Fine, M.(1985). A Family-of-Origin Scale.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11(3), 287-297.
- Kerr, M. E. & Bowen, M. (2005).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남순현·전영주·황영훈 역). 서울: 학지

- 사. (원저 1988년 출판)
- Luster, T. & Okagaki, L. (1993). *Multiple influences on parenting: Ecological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T. Luster & L. Okagaki(Eds.), *Parenting: An ecological perspective*(p. 227-250).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Ratey, J. J. (2001). *A User's guide to the brain*. NY: Knop Doubleday Publishing Group.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 Satir, V. (2006). 가족치료(홍성화, 안향림 역). 서울: 나눔의 집. (원저 1964년 출판)
- Satir, V. (2006). 아름다운 가족(나경범 역). 남양주: 창조문화. (원저 1988년 출판)
- Shore, R. (2001). 유아의 두뇌발달(곽노의, 김유미 역). 파주: 양서원. (원저 1997년 출판)
- Winnicott, D. W. (2000). 성숙과정과 촉진적 환경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저 1965년 출판)

투고일자 : 2021. 05. 31.

심사일자 : 2021. 06. 11.

게재확정일자 : 2021. 06. 30.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Experience of Parents with Infant Children on Parenting Behavior

KyungHwa Yoo

Ibomul(Social Service Center)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in the effects of family-of-origin experiences on parenting behavior for parents with children of infancy. SPSS 24.0 and LISREL 8.52 were used for data analysis of 711 parents with infant children. Pearson's moment correlat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of-origin experience, self-esteem, and parenting behavior.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analyzed and researched to verify the research model on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experience and self-esteem on parenting behavior.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odel, the model fit test was performed.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for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experience on parenting behavior, it was found that family projection, emotional disconnection, and family regression had a negative effect on parenting behavior. Second, as for the effect of family-of-origin experience on self-esteem, it was found that family projection and emotional disconnection had a negative effect on self-esteem. Third, as for the effect of self-esteem on parenting behavior, it was found that judgment, behavior, and self-worth had a positive effect on parenting behavior. Lastly, it was found that self-esteem plays a partial mediating role in family-of-origin experience and parenting behavior. This study confirmed that parental self-esteem is a major parameter in the effect of parental family experience on parenting behavior, and is meaningful in providing basic data for parent education programs or counseling that can cope with future social crises.

Keywords : Family-of-origin experiences, Self-esteem, Parenting behavior.